

해운분야 전문용어에 관한 고찰 - 해기사 시험을 중심으로

김종관* · 전재호** · 안영중***

*, ** 한국해양수산연수원

A study on the Terminology of Maritime Field - Focusing on Test of Ship Officer

Jong-kwan, Kim* · Jae-ho, Jeon** · Young-joong, Ahn***

*, **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

핵심용어 : 해운분야, 전문용어, 해기사 시험, 전문용어 오사용

Key Words : Maritime field, Terminology, Test of ship office, Misuse of terminology

I. 연구의 개요

1. 연구 배경

- 해운분야의 전문용어는 선진해운국을 통해 주로 전해짐
- 과거 해운분야의 전공 서적 등도 미국, 영국, 일본 등의 전공서적을 편찬한 서적이 많았음
- 용어의 한글화를 통해 이해를 돕고 일본식 용어의 잔재를 청산하고자 교과서 등을 중심으로 해운분야 전문용어 개선 작업이 진행중임

2. 선행연구

- 해운분야의 전문용어에 대한 연구는 주로 표준해사용어에 관한 연구 또는 항해학에 한정된 학술용어 개념 정립에 집중되었음
- IMCO 표준해사용어에 관한 연구 (이재우, 한국항해항만학회, 1982)
지문화해학 학술용어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: 검토와 선수방향을 중심으로 (문성배, 전승환, 한국항해항만학회, 2012)

한국해양수산연수원(KIMFT)

II. 해운용어 전문용어 오사용 사례

2. 법령상 용어의 혼란

□ Towing Light

-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제21조 정의 d항의 Towing Light는 한국선급의 KR-con Ver.15 및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과 해설 등의 서적에서는 '에인등'이라는 용어를 사용함
-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을 수용한 해사안전법 제 79조(등화의 종류)에서는 '에선등'이라는 용어를 사용함

* 유사사례

- 상호 시계내에 있는 선박의 운항, 운전자유선(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)
-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배의 항법, 조종불능선(해사안전법)

한국해양수산연수원(KIMFT)

II. 해운용어 전문용어 오사용 사례

1. 한글화의 사례

□ 순주법 (Heave to)

- 항선조선법 중에 하나인 순주법은 다수의 전공서적에서는 'Heave to' 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
- 선박항해용어 사전에도 허브투[heave to]라 표기하고 있음
- 하지만, 다수의 교과 교과서에는 'Heave to'라는 용어 대신에 순주법이라는 용어를 사용중임
- 이에 시험 및 전공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함

* 유사사례

- 거주법 => Scudding, Kick => 편출선미 라는 용어를 사용중임

한국해양수산연수원(KIMFT)

II. 해운용어 전문용어 오사용 사례

3. 번역상의 오류

□ 배수량등곡선도

- 다수의 전공서적에서 배수량 등곡선도라 표기하고 있음
- 배수량등곡선도의 영문표기는 'Hydrostatic curve'로 배수량과 관련된 곡선도라기 보다 선박의 정수역학적인 선도를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
- 排水量等曲線에서 '等'이란 글자도 무리, 부류를 나타내므로 등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
- 따라서 배수량 등곡선도는 배수량 곡선과 다른 여러 곡선도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'배수량 등 곡선도'라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

한국해양수산연수원(KIMFT)

* First Author : jkkim@seaman.or.kr, 051-620-5794

† Corresponding Author : yjahn@seaman.or.kr, 051-620-5795